

# 유아기 감성지능 발달 경향성 연구

Age Differences in Emotional Intelligence :  
The Emotional Intelligence Test for Children

이승은(Seung Eun Lee)<sup>1)</sup>

## ABSTRACT

Emotional intelligence is a relatively new concept and little research to date has examined age differences. In order to examine developmental patterns in emotional intelligence(EI), the Emotional Intelligence Test for Children(EITC, Lee, 2003) was administered to 367 children, 4- to 8-years of age. Data were analyzed by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MANOVA) and post hoc univariate analyses of variables. Resul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y age in total and sub-total scores of EITC. When the means of test scores were presented graphically as developmental curves, EI totals and sub-scores showed the increases in EI that occurred with increased maturity. Additional research is needed to verify developmental models of EI and to explore which factors have an effect on EI.

**Key Words** :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 발달경향(developmental tendency) 유아용 감성지능 척도(emotional intelligence test for children).

## I. 서 론

유아교육 기관에서 유아들을 관찰해보면, 행동유형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 유형은 교사와 또래들이 그 유아를 좋아할 뿐 아니라 누구하고든 잘 지내고, 집단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건 편안하게 상호작용하고, 때로는 리더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감정을 말로 잘

표현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사과도 잘 하는 유형이다. 반면 B 유형은 주의집중도 잘 안 되고 충동적이며, 상황을 조리 있게 설명하는 능력도 부족하고 또래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이에 대해 꾸중을 들어도 반성하기보다 자신이 이로 인해 받은 부적 강화에 대해서만 후회하는 유형이다. C 유형은 인지적으로는 발달이 잘 이루어져 있고, 성취도도 높아서 교사하고는 별 문제가

<sup>1)</sup> 동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전임강사

**Corresponding Author** : Seung Eun Le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Dongshin University, 252 Daeho-dong Naju Chennam 520-714, Korea  
E-mail : hipster104@dsu.ac.kr

없어 보이지만 또래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항상 앞장서려고만 하며, 타인이 자신에게 한 말이나 행동에 상처를 잘 받는 유형이다. D 유형은 겉으로 보기에는 또래들과 잘 지내는 것 같으나 또래와의 관계에 소극적이며 조용한 듯 보이나 직면하거나 대립하는 것을 피하고, 위축되어 있고, 고분고분하며 또래 보다는 자신 보다 나이 어린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편안해 하는 유형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앞의 예에서 A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조금씩 다르지만 나머지 유형들은 정서와 인지가 조화롭게 발달되지 못한 상태이며, 특히 상황에 적절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며, 타인의 감정이나 입장을 이해하는 능력 및 사고에 정서를 활용하는 능력 즉, 감성지능에 공통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아들에게서 이러한 문제를 발견했을 때, 아직 어려서 그렇다고만 생각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아기에는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성을 심어주고 감정의 의미를 알고, 사고과정에 정서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인 감성교육이 인지교육보다 더 중요하며(이승은·이영석, 2004b), 교육부에서 고시한 제 6차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도 5개 생활영역 모두에서 유아가 감정과 욕구를 절제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협력하며, 올바르게 의사소통 하는 등의 유아기의 감성지능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이영석·임명희·이정화, 2004). 또한 유아기는 발달 특성상 인성의 기초가 형성되는 적기(이영석, 1999)이므로 유아기는 인지중심 교육보다 감성교육이 기반이 되는 통합교육이 필요한 시기(이승은·이영석, 2004b)이다. 따라서 감성지능이 바탕이 되어 유아의 조화로

운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아기의 감성지능 발달 특성 및 과정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감성지능 개념이 등장한 이래로 감성지능이 인지능보다 더 설명력이 있으며(이승은·이영석, 2004a), 특히 유아기는 인성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감성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인지와 정서가 조화롭게 발달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있으나 유아기의 감성지능 발달 특성 및 과정 등을 밝히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용으로 개발된 감성지능 검사(emotional intelligence test for children : EITC)를 만 4~8세 유아들에게 실시하여 감성지능 하위 영역의 발달 과정 및 연령별 발달 경향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유아의 인지와 정서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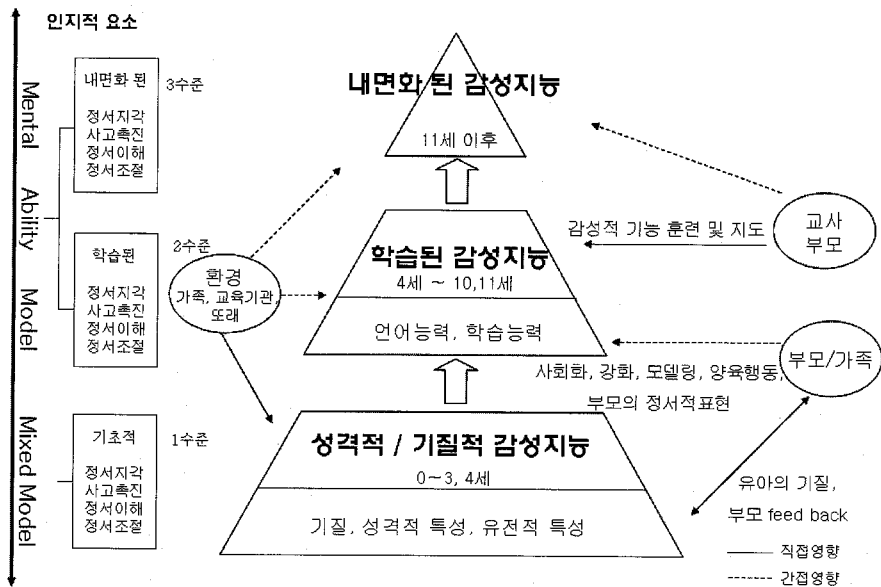
국내에서 Emotional Intelligence를 논의할 때 정서지능 또는 감성지능으로 번역되어 혼용되고 있다. 이경민(2002)에 따르면 정서(情緒)는 사전적 의미로 볼 때, 뜻 情과 실마리 緒가 합쳐져 ‘어떤 사물 또는 경우에 부딪쳐 일어나는 갖가지 감정, 상념이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분, 분위기’ 또는 ‘감정경험의 한 가지, 그때의 정신상태, 희로애락과 같이 갑자기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일어나 본능적이며 신체적 표출이 따르는 감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감성(感性)은 느낄 感과 성품성이 합하여 ‘자극 또는 자극의 변화에 대해 감각이 일어나게 하는 능력으로 오성과 함께 지식을 구성하는 독립적인 표상능력, 대상으로부터 촉발되어 표상을 얻게 되는 수동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이에 더하여 이경민(2002)은 영어의 Emotion이 ‘움직이게 하다’는 Emovere에서 유래하였음을 고려할 때, 감정이나 분위기의 정서라는 의미보다 감각에 영향을 주어 움직이는 모습의 의미를

함축한 감성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감성지능 정의 또한 여러 연구의 흐름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 채택한 Mayer, Salovey, 그리고 Caruso(2002)는 감성지능의 핵심요소로 정서정보의 보편적인 처리과정 및 정서와 관련된 추론, 정서와 인지의 상호작용 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정서지능보다는 감성지능이라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

유아기의 감성지능 특성 및 발달경향성을 제시한 연구는 거의 없으나 Mayer, Caruso 그리고 Salovey(2000b)가 제시한 감성지능의 Four Branch Model에 기초하여 유아의 감성지능 발달 단계 및 특성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이 모델에 의하면 감성지능은 단일한 능력이 아니라 얼굴표정에 나타난 정서를 구분하는 비교적 단순한 능력에서부터 일상적 대인관계 상황에서 정서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정서와 동기가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 인식하는 복잡하고 통합적인 능력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능력들의 집합이다. 이 모델에서는 감성지능의 하위영역을 중요성과 복잡성에 따른 수준으로 배열하고, 각 영역들이 정서의 지각, 평가, 표현 → 정서의 사고촉진 → 정서이해 → 정서조절의 순으로 순차적인 발달 선상에 존재하며, 논리적 연속성을 가지고 발달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정서의 지각, 평가, 표현 능력의 발달이 선행되어야, 정서의 사고촉진 능력이 발달하며, 마찬가지로 정서의 사고촉진 능력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정서이해 능력이 발달하고, 하위의 세 영역의 발달이 모두 충실하게 이루어진 후에 나타나는 통합된 능력이 바로 정서조절 능력이며 이는 성숙한 성인에게서만 나타난다고 설명하며, 감성지능이 순차적으로 발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Four Branch Model을 유아의 감성지능 발달에 적용하는 데에는 Zeidner, Matthews, Roberts, 그리고 MacCan

(2003)의 지적처럼 몇 가지의 한계점이 지적된다. 즉, Mayer 등(2000b)의 주장처럼 감성지능의 4요인 사이의 관계가 순차적인 발달선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반증은 아주 어린 유아이거나 감성지능의 발달수준이 낮은 단계라도, 상위의 감성 능력을 보이는 연구 결과들을 예로 제시할 수 있다. 물론 정서지각과 같은 하위의 감성요인이 더 빨리 나타나고, 발달이 충실화되기는 하지만, 이전 단계의 정서지각 능력의 발달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상위의 감성능력(정서이해, 정서조절)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언어능력이 아직 발달되지 않은 생후 1주된 신생아에게 혐오자극을 제시한 경우, 영아들은 손가락을 빨거나 혐오자극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전략을 사용하고,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유아들의 경우에는 부모(제 1 양육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Kopp, 1989). 따라서 아주 어린 유아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성격이나 기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초보적 수준에서의 정서지각 능력 뿐 아니라 정서이해, 정서조절 능력이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이승은(2003)은 감성지능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들을 바탕으로 Zeidner 등(2003)의 이론과 Mayer 등(2002)의 이론을 결합하여,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3가지 수준으로 구성된 감성지능 발달 모델을 제시하고 다음처럼 설명하고 있다.

감성지능 발달의 제 1수준은 0세부터 만 3, 4세 시기의 유아들에게 해당되는 수준이다. Rothbart(1989)의 기질모델에 따르면 기질의 차원은 거의 독립적이며, 낮은 차원부터 높은 차원까지 ① 부정적 정서(불편, 공포, 화남, 슬픔), ② 외향성(즐거움, 활동성, 충동성), ③ 노력이 필요한 통제(억제적 통제, 주의집중, 낮은 즐거움)의 3가지 차원으로 구성되는데 0세~3, 4세



〈그림 1〉 유아의 감성지능 발달 모형

유아의 경우 경험을 내면화하거나 정서 조절 전략을 사용하는데 기질적 성격적 요인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 1 수준에서 감성지능 발달의 기반이 되는 기질/성격적 요소들은 유아의 감성지능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외향적, 긍정적 특성이 감성지능의 발달에 이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특성 때문에 오히려 유아가 자신의 충동을 통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또 공포는 부적 정서 반응이고 감성지능의 발달을 파괴할 수도 있지만, 순응의 형태로 정서조절을 증진시킬 수도 있다(Kochanska, Coy, & Murray, 2001). 따라서 1수준의 감성지능은 통합된 전체로서가 아니라 미분화된 형태로 초보적인 정서지각, 정서의 사고촉진, 정서이해, 정서조절 능력을 보이므로, 이 시기는 정신적 능력이라기보다, 기질, 성격적 요인,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가장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형태로 감성지능의 하위능력들이 나타나는 시

기이다. 따라서 <그림 1>에 제시된 것처럼 부모나 가족의 영향, 환경 등의 외부적 요인과 유아가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기질적/성격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감성지능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라고 설명할 수 있다. 발달이 진행되면서, 유아들은 선천적인 유전적인 영향으로부터 점차 벗어나 사회적 학습을 하기 시작한다. 사회화와 학습이 시작되면 유아가 감성지능 발달의 2수준, 학습된 감성지능의 단계로 발달할 준비가 된 것이다. 2 수준은 만 4세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까지에 해당된다. 만 4세 경부터는 사회화나 교육을 통한 훈련이나 학습에 의해, 정서의 사고촉진, 정서이해, 정서조절 전략을 배우는 시기이다. 따라서 2 수준은 <그림 1>에 제시된 것처럼 유아가 이러한 전략들을 얼마나 잘 배우고 소화했느냐에 의해 좌우되는 학습되고 사회화된 감성지능이다. 그러므로 2수준부터 성격적 요소와 명확히 구분되는 정서에 관련된 추론을 수행하는 능력으로서 감성지능을 정의

할 수 있다. Mayer와 Salovey가 주장한 정신적 능력으로서 감성지능 모델은 바로 4세 이후의 감성지능 수준부터 적용된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2 수준의 감성지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은 언어 능력과 추론, 해석적 능력을 포함한 인지능력의 발달, 그리고 부모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감성적 기능의 훈련 및 지도이다. 즉, 만 4세부터, 감성능력을 학습할 수 있는 인지적, 언어적 능력이 갖추어지므로 교육을 통해 감성지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적기가 바로 만 3, 4세경부터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바로 이 수준에 속해있다.

마지막 수준인 3수준은 11세 이후에 발달되는 통찰적 자아조절적 감성지능이다. 이승은(2003)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3수준이 되면 인지적인 문제나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전략을 의식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점차 자신의 상황이나 요구 뿐 아니라 적절한 행동에 대한 타인의 기대까지 고려하여 반영적으로 자신을 조절하거나 점검할 수 있는 자기평가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 이는 학습된 감성지능을 넘어서는 자기 통찰적 능력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다. Saarni(2000)에 따르면 자기조절이나 자기인식 능력의 획득을 위해서는 학습이나 사회적 경험이 중요하며 또한 초인지를 통해 통찰적/자아조절적 능력이 발달된다. 따라서 이전 수준인 2수준에서 감성지능 증진과 관련된 기능을 충분히 훈련하고 학습하고, 풍부한 사회적 경험을 하면 스스로 문제해결 과정에 정서를 활용하는 통찰적, 자기인식적 감성지능 단계인 3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감성지능의 발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연령별, 성별 감성지능 발달 경향성을 밝히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연령별, 성별 감성지능의 차이에

관한 선행연구로 성인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들을 들 수 있다. Bar-On(1997)은 성인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감성지능이 10대 이후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발달 상태를 보인 반면 감성지능은 연령에 따라 계속 높아지는 경향성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Mayer, Caruso 그리고 Salovey(1999)는 청소년 집단과 성인집단으로 나누어 감성지능 검사 결과를 비교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성인집단이 청소년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성지능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인 내에서도 개인의 연령 증가에 따라 감성지능 점수가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Roberts, Zeidner 그리고 Matthews(2001)는 연령차에 따른 감성지능 검사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를 자신들의 연구에서 연구대상의 연령을 특정 범위로 제한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Day와 Carroll(2004)은 여러 유형의 감성지능 검사 중 감성지능의 정신적 능력 모델에 근거한 척도인 Mayer 등(2002)의 MSCEIT (Mayer-Salovey-Caruso emotional intelligence test)로 측정된 경우에만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처럼 연령과 감성지능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왔지만, 연구대상을 유아로 하여 연령에 따라 감성지능 각 하위영역의 발달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통해 유아의 감성지능 발달경향을 밝힌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유아의 감성지능 발달경향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승은(2003)이 제시한 유아의 감성지능 발달모형에서 1수준, 2수준에 속하는 모든 연령의 유아를 포함하여야 하지만, 현재까지 개발된 감성지능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유아의 언어이해력 및 인지능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유아용 감성지능 척도가 만 4세 이상이 되어야 적용이 가능한

〈표 1〉 연구대상 유아의 성별, 연령별 분포(M : 평균월령, SD : 표준편차)

(n=367)

성별	연령			4세			5세			6세			7세			8세			계			
	M	SD	N	M	SD	N	M	SD	N	M	SD	N	M	SD	N	M	SD	N	M	SD	N	
남	4.09	.03	25	5.05	.04	55	6.04	.03	48	7.07	.37	30	8.05	.03	31	5.99	1.27	189				
여	4.09	.01	14	5.05	.03	53	6.04	.03	52	7.04	.34	36	8.05	.04	23	6.06	1.15	178				
계	4.09	.02	39	5.06	.03	108	6.04	.03	100	7.05	.37	66	8.05	.03	54	6.02	1.21	367				

척도이므로 본 연구는 유아의 감성지능 발달경향을 밝히기 위한 기초로서 2수준에 해당하는 만 4~8세 유아들의 감성지능 발달경향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고찰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만 4~8세 유아를 대상으로 감성지능 검사를 실시하여 연령별 발달경향 및 발달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발달에 적합한 유아용 감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감성지능 발달 모형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연령별로 감성지능에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연령에 따른 감성지능 하위영역의 발달경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서울시와 인천시의 유아교육기관 및 초등학교(어린이집 2기관, 유치원 2기관, 초등학교 2개교)에 다니고 있는 만 4~8세 유아 367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유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1>에 제시하였다.

### 2. 검사도구 - 유아용 감성지능 검사 EITC

유아의 감성지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승은과 이영석(2004b)의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인 유아용 감성지능척도(emotional intelligence test for children : EITC)를 사용하였다. EITC는 Mayer 등(2002)이 제시한 감성지능의 Four Branch Model에 근거하여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추어 감성지능의 하위영역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EITC는 성인용 감성지능 척도인 MSCEIT(Mayer-Salovey-Caruso emotional intelligence test, Mayer, et al., 2002) 및 유아용 감성지능 척도인 EISC(emotional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 Sullivan, 1999)를 번안하고 문항을 재구성하여 소규모 현장적용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근거로 10개 소척도 41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수정·보완하여 46문항을 실시하였다. 문항의 세부적인 구성은 <표 2>와 같으며, 3개 혹은 4개의 보기 중에서 하나의 정답을 유아가 직접 고르게 하는 면접법과 수행평가가 결합된 방식으로, 유아의 감성지능을 측정한다. 선행연구에서 220명의 만 4~6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구성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결과, EITC는 감성지능의 이론적인 구성개념과 특성을 잘 측정하는 타당하고 신뢰로운 도구임을 알 수 있었다. 개별 유아별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25분~30분 정도였다.

<표 2> 유아용 감성지능 척도의 하위 소척도와 문항 수  
(이승은·이영석, 2004b)

감성지능의 하위영역	소 척 도	문항 수	
유아용 감성지능 척도	① 얼굴표정	4문항	
	정서지각	② 그림패턴 및 색	7문항
		③ 이야기	4문항
		④ 정서의 사고 촉진	5문항
	정서의 사고촉진	⑤ 정서의 감각적 표현	5문항
		⑥ 변화하는 정서	6문항
	정서이해	⑦ 혼합정서	2문항
		⑧ 감정이입	4문항
		⑨ 정서조절	5문항
	정서조절	⑩ 정서적 관계	4문항
4영역	10개 소척도	46문항	

### 3.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에서 감성지능 검사를 실시한 검사자는 유아교육 전공 대학원생 및 각 학급의 담임교사들이었다. 이들은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여, 유아를 대하는 자세 및 지도능력이 갖춰져 있는 자들이었다. 검사에 앞서 연구자는 검사자들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사전교육은 검사도구의 내용 및 구성, 유아와의 라포 형성 방법, 구체적인 검사 실시 과정의 시연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더불어 유아가 답할 때, 검사자가 단서를 주거나, 검사자의 반응이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검사자가 사용할 언어와 반응까지 제한하여 검사자를 훈련하였다. 검사는 검사자와 유아의 일대일 방식으로 실시하였고, 자료 수집기간은 총 8주였다.

### 4. 자료수집 및 처리

연령에 따라 감성지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하였으

며 연령별 발달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 및 단변인 F 검증을 수행하고, 하위요인별 점수의 평균에 대한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 III. 결과 및 해석

### 1. 감성지능의 발달적 변화

<표 3>에 각 소척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연령별로 제시하였고, <표 4>에는 감성지능 검사의 하위 영역별 점수와 감성지능 검사 총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연령별로 제시하였다. <표 3>과 <표 4>에 제시된 연령에 따른 평균값의 변화를 보면, EITC 각 하위 검사에서 측정된 평균점수가 유아의 연령증가와 더불어 완만하게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연령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각 하위검사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MANOVA 분석을 수행한 결과(표 5 참고), 감성지능 하위영역의 점수들은 성별 및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으나, 유아의 연령에 따라 각 하위 영역의 조합된 점수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 $F_{(4,363)}=8.062, p<.001$ ). 즉 유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성지능의 하위 영역들이 유의미한 차별적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감성지능 각 하위 영역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다변량 통계치는 각 하위영역의 조합된 평균이 유아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 모든 개별 하위영역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속변인의 상대적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단변인 F 값과 에타제곱 값을 함께 제시하였다. <표 5>에 의하면 감성지능 하위영역 중에서 선형

〈표 3〉 유아용 감성지능 검사 점수의 소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M(SD)

집단	소척도	얼굴표정 (4점만점)	그림및패턴 (7점만점)	이야기 (4점만점)	사고촉진 (5점만점)	감각적 표현 (5점만점)	정서변화 (6점만점)	혼합정서 (2점만점)	감정이입 (4점만점)	정서조절 (5점만점)	정서관계 (4점만점)
4세	남	3.80(.58)	2.40(.96)	3.64(.57)	3.48(1.33)	2.96(1.45)	4.36(1.04)	1.08(.91)	2.80(.86)	2.96(1.46)	2.88(.97)
	여	3.86(.36)	2.36(.84)	3.50(.76)	3.64(1.21)	2.43(1.87)	4.00(.96)	1.43(.51)	2.64(.63)	2.86(1.35)	2.14(1.29)
	전체	3.82(.50)	2.38(.91)	3.59(.64)	3.53(1.27)	2.77(1.61)	4.23(1.01)	1.21(.80)	2.74(.79)	2.92(1.40)	2.62(1.13)
5세	남	3.69(.60)	2.49(1.30)	3.58(.66)	3.73(1.11)	2.75(1.35)	4.47(1.34)	1.51(.63)	2.84(1.10)	3.00(1.49)	2.84(1.18)
	여	3.86(.62)	2.52(1.14)	3.75(.70)	3.92(.95)	3.23(1.25)	4.66(1.19)	1.45(.57)	2.94(1.01)	3.21(1.41)	2.75(1.05)
	전체	3.77(.59)	2.51(1.22)	3.67(.68)	3.82(1.04)	2.98(1.31)	4.56(1.27)	1.48(.60)	2.89(1.05)	3.10(1.45)	2.79(1.12)
6세	남	3.81(.64)	2.17(1.33)	3.69(.59)	3.94(1.14)	3.23(1.12)	4.93(1.09)	1.65(.56)	2.83(.93)	3.69(1.45)	3.04(1.13)
	여	3.78(.59)	2.86(1.58)	3.85(.41)	4.23(.94)	3.44(.91)	5.12(1.06)	1.33(.74)	3.25(.76)	3.81(1.24)	3.31(.88)
	전체	3.78(.61)	2.53(1.50)	3.77(.51)	4.09(1.05)	3.34(1.02)	5.03(1.07)	1.49(.67)	3.05(.87)	3.75(1.34)	3.18(1.01)
7세	남	3.93(.25)	2.76(1.50)	3.77(.62)	4.43(.81)	3.87(.73)	5.23(.89)	1.67(.61)	3.33(1.15)	3.90(1.42)	2.53(1.01)
	여	3.83(.56)	3.44(1.13)	3.86(.42)	4.50(.81)	3.94(.75)	5.47(.83)	1.75(.44)	3.19(.98)	4.11(1.23)	3.06(.89)
	전체	3.87(.45)	3.12(1.35)	3.82(.52)	4.47(.81)	3.91(.74)	5.36(.83)	1.71(.52)	3.26(1.06)	4.02(1.33)	2.82(.98)
8세	남	3.97(.18)	3.61(1.26)	3.81(.75)	4.52(.77)	3.94(.73)	5.26(.93)	1.74(.51)	3.23(.80)	4.00(1.21)	2.94(1.03)
	여	3.91(.29)	4.21(1.53)	4.00(.00)	4.87(.34)	4.17(.58)	5.78(.52)	1.87(.34)	3.39(.66)	4.04(1.19)	3.43(.59)
	전체	3.94(.23)	3.87(1.40)	3.89(.57)	4.67(.64)	4.04(.67)	5.48(.82)	1.80(.45)	3.30(.74)	4.02(1.20)	3.15(.90)
전체	남	3.82(.53)	2.62(1.37)	3.63(.64)	3.99(1.11)	3.23(1.22)	4.83(1.05)	1.55(.66)	2.97(1.01)	3.48(1.44)	2.86(1.09)
	여	3.83(.55)	3.01(1.43)	3.81(.54)	4.23(.95)	3.49(1.15)	5.05(.96)	1.53(.60)	3.12(.88)	3.65(1.34)	3.02(.99)
	전체	3.83(.54)	2.81(1.41)	3.75(.59)	4.11(1.04)	3.38(1.19)	4.93(1.13)	1.54(.63)	3.04(.95)	3.56(1.39)	2.94(1.05)

조합의 차이에 기여하는 변인은 F 값이 가장 큰 사고촉진 영역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에타 제곱 값을 근거로 종속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비교해보면 사고촉진 영역에 의해 19.5%, 정서지각, 정서이해, 정서조절 영역에 의해 각각 14.5%, 14.1%, 8.3%가 유아의 연령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좀 더 명확하게 감성지능 하위영역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Roy-Bargman의 단계적 F 검증을 수행하였다. 단계적 F값에 기초하면 단변인 F 분석 결과와는 다르게 정서지각의 효과가 가장 크고 단변인 F 분석에서는 유의했던 정서이해 영역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단계적 F 검증은 먼저 분석된 종속변인을 공변인으로 삼아 그 효과를 교정한 상태에서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는 방식을 취하므로 나중에 분석된 사고촉진과 정서이해 영역이 먼저 분석된 정서지각 영역과 공유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단계적 F 검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위영역 간의 상관관을 살펴보아도 .27~.59의 유의미한 상관관이 나타나므로 각 영역의 공유되는 부분이 상당함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은 상황에서는 단변인 F값에 의존하여 하위영역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양병화, 1998). 요약하면, 유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성지능 각 하위영역 점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며, 특히 정서와 인지의 상호작용이 강조되는 사고촉진 영역이 유아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가장 많은 발달 및 차이를 보이는 영역임을 알 수 있었다.

## 2. 감성지능의 연령 별 차이

MANOVA 분석을 통해 유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성지능 하위영역 점수의 조합된 평균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표 4> 유아용 감성지능 검사 하위 영역별 평균과 표준편차 M(SD)

집단	하위 영역	정서지각 (15점 만점) (얼굴표정/그림패턴 및 색 /이야기)	정서의 사고촉진 (10점 만점) (사고촉진/감각적 표현)	정서이해 (12점 만점) (정서변화/혼합정서/ 감정이입)	정서조절 (9점 만점) (정서조절/정서관계)	감성지능 총점 (46점 만점)
4세	남	9.84 (1.46)	6.44 (1.95)	8.24 (2.07)	5.84 (1.95)	30.36 (6.16)
	여	9.71 (1.44)	6.07 (2.53)	8.07 (1.38)	5.00 (2.25)	28.86 (6.08)
	전체	9.79 (1.44)	6.31 (2.14)	8.18 (1.83)	5.54 (2.08)	29.82 (6.10)
5세	남	9.76 (1.69)	6.47 (2.01)	8.82 (2.51)	5.84 (2.36)	30.89 (6.77)
	여	10.15 (1.62)	7.15 (1.81)	9.06 (2.13)	5.96 (2.06)	32.32 (5.80)
	전체	9.95 (1.66)	6.81 (1.94)	8.94 (2.33)	5.90 (2.21)	31.59 (6.32)
6세	남	9.67 (1.60)	7.17 (1.98)	9.42 (1.81)	6.73 (2.29)	32.98 (5.86)
	여	10.46 (1.85)	7.67 (1.42)	9.71 (1.68)	7.12 (1.79)	34.96 (4.59)
	전체	10.08 (1.77)	7.43 (1.72)	9.57 (1.74)	6.83 (1.79)	34.01 (5.31)
7세	남	10.47 (1.43)	8.30 (.99)	8.97 (1.76)	6.43 (1.96)	32.59 (6.04)
	여	11.14 (1.27)	8.44 (1.16)	10.23 (1.96)	7.17 (1.58)	35.43 (4.61)
	전체	10.83 (1.38)	8.38 (1.08)	10.42 (1.63)	6.83 (1.79)	37.17 (3.84)
8세	남	11.39 (1.56)	8.45 (1.31)	10.23 (1.45)	6.94 (1.69)	37.00 (4.19)
	여	12.12 (1.58)	9.04 (.71)	11.04 (1.02)	6.48 (1.47)	39.70 (3.04)
	전체	11.70 (1.60)	8.70 (1.13)	10.57 (1.34)	7.17 (1.61)	38.15 (3.94)
전체	남	10.13 (1.68)	7.26 (1.93)	9.35 (2.14)	6.34 (2.16)	33.07 (6.20)
	여	10.66 (1.74)	7.72 (1.73)	9.70 (1.90)	6.66 (1.97)	34.75 (5.63)
	전체	10.39 (1.73)	7.49 (1.85)	9.52 (2.03)	6.50 (2.07)	33.89 (5.98)

<표 5> 연령과 성별에 따른 감성지능 검사 하위영역의 MANOVA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Wilks Lambda	단변인 F	df	eta <sup>2</sup>	단계적 F
연령	정서지각	.709***	15.17***	4	.145	15.17***
	사고촉진		25.63***	4	.195	12.96***
	정서이해		14.61***	4	.141	1.80
	정서조절		8.23***	4	.083	2.80*
성별	정서지각	.978	7.38**	1	.020	7.38**
	사고촉진		2.68	1	.007	2.68
	정서이해		1.58	1	.004	1.58
	정서조절		.66	1	.002	.69
연령×성별	정서지각	.969	.69	4	.008	.692
	사고촉진		.83	4	.009	.831
	정서이해		.40	4	.004	.402
	정서조절		1.03	4	.011	1.034

\*p<.05 \*\*p<.01 \*\*\*p<.001

그렇다면 그 차이가 어느 연령 집단간의 차이에 기인하는지를 바탕으로 연령에 따른 유아의 감성지능 발달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Sheffé의 사후검증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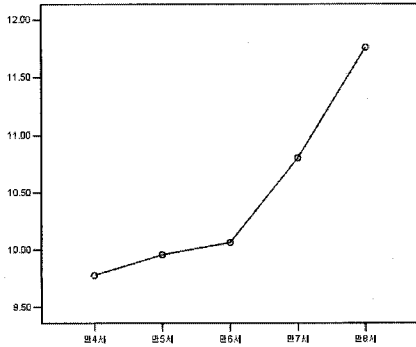
고 각 하위영역 및 감성지능 총점의 발달경향을 예측하기 위해 연령별 평균 그래프를 제시하였다(그림 2-1, 그림 2-2, 그림 3, 그림 4, 그림 5, 그림 6).

<표 6> Scheffé 사후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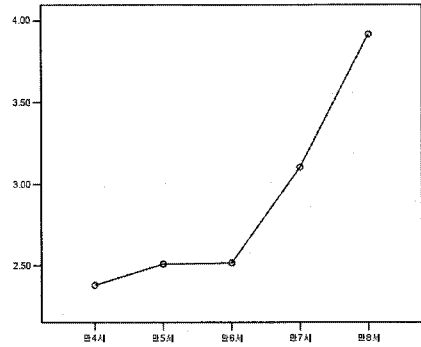
종속변수	연령(I)	연령(J)	평균차(I-J)	표준오차
정서 지각	4세	5세	-.159	.302
		6세	-.285	.305
		7세	-1.039*	.326
		8세	-1.909***	.339
	5세	4세	.159	.302
		6세	-.126	.224
		7세	-.880*	.252
		8세	-1.750***	.269
	6세	4세	.285	.305
		5세	.126	.224
		7세	-.753	.256
		8세	-1.624***	.273
7세	4세	1.039**	.326	
	5세	.880*	.252	
	6세	.753	.256	
	8세	-.870	.296	
8세	4세	1.909***	.339	
	5세	1.750***	.269	
	6세	1.624***	.273	
	7세	.870	.296	
정서의 사고 촉진	4세	5세	-.498	.312
		6세	-1.122*	.315
		7세	-2.071***	.338
		8세	-2.396***	.351
	5세	4세	.498	.312
		6세	-.624	.232
		7세	-1.573***	.261
		8세	-1.898***	.279
	6세	4세	1.122*	.315
		5세	.624	.232
		7세	-.949*	.265
		8세	-1.273**	.282
7세	4세	2.071***	.338	
	5세	1.573***	.261	
	6세	.949*	.265	
	8세	-.325	.307	
8세	4세	2.396***	.351	
	5세	1.898***	.279	
	6세	1.274***	.282	
	7세	.325	.307	
정서 이해	4세	5세	-.756	.355
		6세	-1.391**	.359
		7세	-2.154***	.384
		8세	-2.395***	.399
	5세	4세	.756	.355
		6세	-.635	.264
		7세	-1.398***	.297
		8세	-1.639***	.317

<표 6>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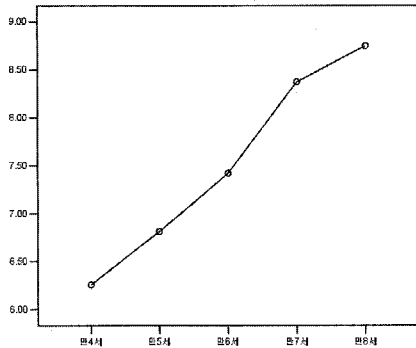
종속변수	연령(I)	연령(J)	평균차(I-J)	표준오차
정서 이해	6세	4세	1.391**	.359
		5세	.635	.264
		7세	-.763	.301
		8세	-1.004*	.321
	7세	4세	2.154***	.384
		5세	1.399***	.297
		6세	.763	.301
		8세	.241	.349
	8세	4세	2.395***	.399
		5세	1.639***	.317
		6세	1.004*	.321
		7세	.241	.349
정서 조절	4세	5세	-.360	.373
		6세	-1.392**	.377
		7세	-1.295*	.403
		8세	-1.628**	.420
	5세	4세	.360	.373
		6세	-1.032**	.277
		7세	-.935	.312
		8세	-1.269**	.333
	6세	4세	1.392**	.377
		5세	1.032**	.277
		7세	.097	.317
		8세	-.237	.337
7세	4세	1.295*	.430	
	5세	.935	.312	
	6세	-.097	.317	
	8세	-.333	.366	
8세	4세	1.628**	.420	
	5세	1.629**	.333	
	6세	.237	.337	
	7세	.333	.366	
감성 지능 총점	4세	5세	-1.772	1.005
		6세	-4.190**	1.016
		7세	-6.558***	1.087
		8세	-8.328***	1.131
	5세	4세	1.772	1.005
		6세	-2.418*	.747
		7세	-4.786***	.841
		8세	-6.556***	.897
	6세	4세	4.190**	1.016
		5세	2.417*	.747
		7세	-2.369	.854
		8세	-4.138***	.909
7세	4세	6.558***	1.087	
	5세	4.786***	.841	
	6세	2.369	.853	
	8세	-1.769	.987	
8세	4세	8.328***	1.131	
	5세	6.556***	.897	
	6세	4.138***	.909	
	7세	1.769	.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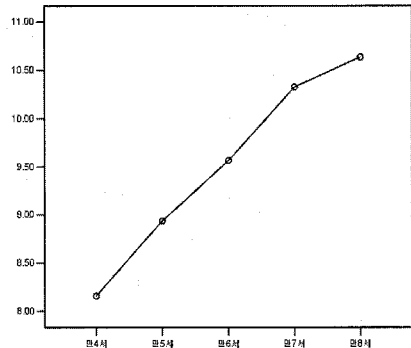
〈그림 2-1〉 정서지각 발달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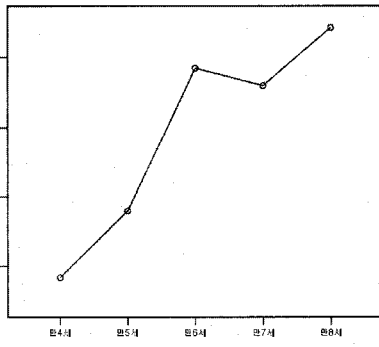
〈그림 2-2〉 그림패턴 및 색깔 소척도 점수의 발달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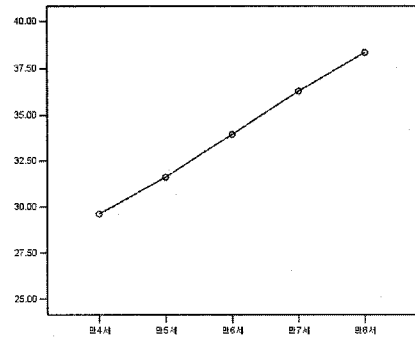
〈그림 3〉 정서의 사고추진 발달경향



〈그림 4〉 정서이해 발달경향



〈그림 5〉 정서조절 발달경향



〈그림 6〉 감성지능 총점의 발달경향

<표 6>에 따르면 정서지각 영역은 만 4, 5, 6세 집단과 만 7, 8세 집단의 점수차가 유의미하였다. <그림 2-1>를 보아도 만 4~6세 사이에는 완만한 발달을 보이다가 만 7세에 더 큰 발달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하위척도별 점수변화를 살펴보면 얼굴표정으로 정서를 파악하는 소척도

점수와 이야기 속에 표현된 주인공의 정서를 파악하는 척도인 이야기 소척도 점수의 변화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완만한 변화를 보인 반면, 색깔 및 패턴만으로 정서가 표현된 문항을 보고 적합한 정서를 알아내도록 구성된 그림패턴 및 색깔 척도에서 만 4~6세의 경우 비슷한 발달을

보이나, <그림 2-2>를 보면 7세부터 급격한 발달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쁨, 슬픔, 화남, 놀람 등의 기초적인 정서가 표현된 얼굴표정을 구별해 내거나 특정 상황 속에서 주인공의 정서를 알아내는 능력은 좀 더 빠른 시기에 이루어지나, 그림패턴이나 색깔을 보고 거기에 표현된 감정을 알아내는 능력은 7세 이후에 급격하게 발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서지각 영역의 연령별 점수차는 그림패턴 및 색깔 소척도에서 보인 점수차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사고촉진 영역은 2년을 단위로 유의미한 발달 차이를 나타냈다. 즉 만 4세는 6, 7, 8세와 5세는 7, 8세와 6세는 4세, 8세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영역을 구성하는 소척도인 정서가 인지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과 관련된 능력을 측정하는 정서의 사고촉진 소척도와 정서를 다른 감각양식으로 비유하거나 대조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정서의 감각적 표현 소척도 점수를 살펴보면 두 척도 모두 특히 7세경에 발달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이해 영역도 정서의 사고촉진 영역과 비슷하게 2년 단위로 연령별 차이를 나타냈다. 정서의 연결고리와 정서의 변환 이해 능력을 측정하는 정서 변화 소척도 평균 점수는 연령별로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가감정 및 혼합정서 이해능력을 측정하는

소척도 및 감정입 소척도 점수가 7세경에 큰 발달을 보였다.

정서조절 영역의 경우 만 5세와 6세 사이에 급격한 발달을 보이며, 오히려 7세에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6세보다 평균 점수가 더 낮게 나타났다. 정서조절 영역을 구성하는 소척도 점수를 살펴보면 정서를 조절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행위의 효과를 판단하게 하여 의사결정과 정서를 얼마나 잘 통합

시키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된 정서조절 소척도의 경우 5세와 6세 사이에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이 포함된 의사결정에 정서를 포함시키는 능력인 반영적인 정서조절 능력을 평가하는 정서관계 영역에서는 7세 유아의 평균이 6세보다 더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감성지능의 총점의 연령별 발달경향을 살펴보면, 각 하위검사에서 측정된 평균점수가 유아의 연령 증가에 따라 증가한 것이 반영되어 감성지능 총점도 유아의 연령증가에 따라 완만하게 증가하며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 IV. 논 의

유아용 감성지능 검사인 EITC를 만 4~8세 367명의 유아들에게 실시하여 유아의 감성지능 발달경향을 탐색하여 얻어진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과 성에 따라 감성지능의 각 하위영역 및 총점에 대한 다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에 따라서 모든 하위영역과 총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유아의 감성지능이 연령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달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연령에 따른 하위영역 평균값의 변화를 보면, 각 하위검사에서 측정하는 능력이 연령과 더불어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감성지능도 일반 발달원리에 따라 연령별로 차별적 변화를 나타내며 발달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성별 및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감성지능 총점 및 하위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각 연령별로 여아들이 하위영역 및

총점에서 조금씩 높은 점수를 나타내 일정한 경향성이 나타나 후속 연구에서 이를 검증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감성지능의 각 하위영역의 상관성이 높아 공유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단계적 F 검증 대신, 단변인 F 검증으로 연령별 점수차의 상대적인 기여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서가 인지에도 포함되어 정서와 인지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정서의 사고촉진 영역이 유아의 연령에 따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며 발달하는 영역임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유아의 연령에 따른 유아의 감성지능 발달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Sheffé의 사후검증 실시 결과, Mayer, Salovey 그리고 Caruso(2000a)가 감성지능 발달의 기초영역이라고 설명한 정서지각 영역에서는 얼굴표정이나 이야기 상황 속의 주인공의 정서를 알아내는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감성능력은 만 4세부터 어느 정도 발달이 이루어져 연령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색깔이나 패턴으로 표현된 정서를 파악하는 능력은 6세와 7세 사이에 급격하게 발달함을 알 수 있었다. 인지적 사고과정의 촉진을 위해 정서정보를 활용하기 시작(Mayer, Salovey, & Caruso, 2002) 하는 사고촉진 영역과 정서 과정을 인지적으로 이해하는 정서이해 영역은 모두 12개월 간격으로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24개월에 걸쳐 서서히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 유아들은 만 4~8세 사이의 유아들로 이승은(2003)의 연구에 따르면, <그림 1>에서 설명하였듯이 감성지능 발달의 2수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유아들은 언어능력과 추론 및 해석적 능력을 포함한 인지능력의 발달이 이루어져 감성능력을 학습할 수 있는 인지적, 언어적 능력이 갖추어진 시기이기 때문에 유아교육 기관에서 교육받은 효과가 연구 결과에 반

영되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정서조절 영역은 Mayer 등(2000a)에 의하면 가장 상위의 감성능력으로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정서도 조절하는 지적 정서적 성숙을 증진시키는 반영적 조절 능력이다. 이 영역의 경우, 타인이 포함된 문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정서관계 소척도 평균 점수가 만 7세가 만 6세 유아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정서조절 영역은 가장 상위의 감성능력으로, 유아들은 아직 감성지능 발달의 미분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타인의 정서를 반영하여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정서조절 영역까지 완전히 분화되어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척도 자체의 문제이거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문제는 없는지를 검토하여 후속 연구에서 재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Zeidner 등(2003)의 설명을 근거로 해석하면 감성지능의 하위 요인들 사이의 관계는 순차적인 발달선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기라도 상위의 감성 능력이 나타나지만 완전히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본 연구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서조절 영역에서의 발달 수준 및 정도를 밝히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를 통해 유아가 성숙하고 발달하는 동안 유아의 감성지능이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발달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각 하위영역의 발달이 충실화 되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아기라고 해서 기초적인 감성능력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연령이 어리더라도 상위의 감성능력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발달의 미분화 시기이므로 정서조절 영역에서 만 7세가 만 6세 유아보다 오히려 점수가 더 낮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만 2~7세 시기는 뼈아제의 인지발달 단계에 따르면 전조작기로 직관적,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시기 때문에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이 포함된

정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에 혼란을 보인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의 인지와 정서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유아기 감성지능 발달 특성 및 경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감성지능도 다른 발달영역처럼 연속적이고 점진적이며 축적된 변화과정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감성지능도 유아기의 초기 경험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므로 각 발달 시기의 특성에 맞는 교육적 경험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이승은(2003)이 제시한 감성지능 모델을 근거로 유아의 감성지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각 수준에 유아의 감성지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들을 밝혀, 감성지능 발달 모델을 검증하는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가 감성지능 발달 모형 연구 및 유아의 인지와 정서의 조화로운 발달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수-학습법 연구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이경민(2002). 유아의 지능, 감성지능, 창의성의 관계 및 관련변인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영석(1999). 유아를 위한 감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그 효과 확인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6(1), 1-28.

이영석·임명희·이정화(2004). *현대유아교육과정*. 서울: 형설 출판사.

이승은(2003). 유아를 위한 감성지능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승은·이영석(2004a). 유아용 감성지능 척도 개발에 대한 소고.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2), 89-119.

이승은·이영석(2004b). 유아용 감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아동학회지*, 25(6), 171-189.

양병화(1998). *다변량 자료분석의 이해와 활용*. 서울: 학지사.

Bar-On, R.(1997). *Bar-On emotional quotient inventory : Technical manual*. Toronto : Multihealth Systems.

Day A. L., & Carroll, S. A.(2004). Using an ability-based measure of emotional intelligence to predict individual performance group performance, and group citizenship behavio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 1443-1458.

Kochanska, G., Coy, K. C., & Murray, K. C.(2001). The development of self regulation in the first four years of life. *Child Development*, 72, 1091-1111.

Kopp, C. B.(1989). Regulation of distress and negative emotion: A developmental 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18, 199-214.

Mayer, J. D., Caruso, D., & Salovey, P.(1999). Emotional intelligence meet the traditional standards for an intelligence. *Intelligence*, 27, 267-298.

Mayer, J. D., Salovey, P., & Caruso, D.(2000a). Emotional intelligence as zeitgeist, as personality and as a mental ability. In R. Bar-On & J. Parker (Eds), *Handbook of emotional intelligence: Theory, development, assessment, and application at home school, and work place*(pp. 92-117). San Francisco: Jossey-Bass.

Mayer, J. D., Caruso, D., & Salovey, P.(2000b). Selecting a measure of emotional intelligence: The case for ability scale. In R. Bar-On & J. Parker(Eds), *Handbook of emotional intelligence: Theory, development, assessment, and application at home school, and work place*(pp. 320-342). San Francisco: Jossey-Bass.

Mayer, J. D., Salovey, P., & Caruso, D.(2002). *MSCEIT: User's manual*. Toronto, Canada: Multi-health System.

Roberts, R. D., Zeidner, M., & Matthews, G.(2001). Does

- emotional intelligence meet traditional standards for an intelligence? Some new data and conclusions. *Emotion, 1*, 196-231.
- Rothbart M. K.(1989). Temperament and development. In G. A. Kohnstamm, J. E. Bates, & M. K. Rothbart (Eds.), *Temperament in childhood*(pp. 187-247). N.Y. : John Wiley.
- Saarni C.(2000). Emotional competence : Developmental perspective. In R. Bar-On & J. Parker(Eds), *Handbook of emotional intelligence: Theory, development, assessment, and application at home school, and work place*(pp.68-91). San Francisco: ossey-Bass.
- Sullivan, A. K.(1999). *The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Virginia.
- Zeidner, M., Matthews, G., Roberts R. D., & MacCann, C.(2003). Development of emotional intelligence: Towards a multi-level invest model. *Human Development, 46*, 69-96.

2005년 8월 24일 투고 : 2005년 10월 28일 채택